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

- 노사발전재단, 2026년 안전이음프로젝트② 사계(四季) 추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작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는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해왔다.

올해 사계(四季)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노동존중 문화를 위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내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는데 의미가 있다.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대상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

- 주제: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
- 목적: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현장 밀착 지원
- 내용 ①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② 여름. 땀별엔 심표, 안전엔 느낌표!
③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④ 겨울. 온(溫)세상 안전

이번 3월 31일 김포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계 중 “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서비스·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업하여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공동 추진한다.

또한 이날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의 ‘라이더 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한 결성대회를 개최한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위험 행위를 제보하는 도로 위 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일년 사계절 내내 최우선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책임자	팀 장	홍수민 (02-6021-1065)
		담당자	전문위원	정보근 (02-6021-1124)

